

‘한 방’ 부족 페퍼스, 4연패 뛴… “막내 본능 떨쳐내라”



현대건설에 1-3 패...9일 IBK기업은행과 홈경기 팀 리시브·수비 강점... ‘외인 공백’에 득점률 관건

페퍼스축은행 AI페퍼스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의 기세에 눌려 연패를 끊어내지 못했다.

페퍼스는 지난 5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1라운드 5번째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3(16-25 25-17 21-25 17-25)으로 현대건설에 패했다.

1세트 초반 페퍼스는 현대건설의 강하고 빠른 플레이에 연속실점을 내줬고, 경기는 끌려가는 형세로 전개됐다.

2세트에서 서브 공략이 갖춰진 페퍼스는 현대건설이 흔들린 틈에 2점 차 이상의 선두를 유지했고, 박정아가 상대 양호진과 모마의 블로킹을 뚫어내면서 25-17로 2세트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예림은 빠른 손목 스냅으로 공격을 펼치며 팀내 최다인 17득점(공격 성공률 55.17%)을 거뒀고, 리시브 역시 세트당 34.38%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갔다.

장위와 박은서도 자신감 있는 서브로 팀내 득점 2-3위에 자리했다.

장위는 이날 5개의 서브 에이스(서브 성공률 1.25%)를 포함해 13득점을 올리면서 분위기를 전환을 노렸다.

11득점의 박은서는 높은 타점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파워와 타점을 갖췄고, 좋지 않은 공에 대한 불처리 등을 선보이며 제 몫을 해냈다.

하지만 세트스코어 1-1 동점에서 이어진 3세트, 현대건설 모마의 공격이 되살아나면서 21-25로 세트가 종료됐다.

팽팽하게 진행되던 4세트 8-8 상황에서는 페퍼스의 서브 범실과 공격 실점이 이어지면서 상대가 7연속 득점을 올렸다.

3-4세트 끈질긴 승부에서 뒷심 싸움에서 밀린 페퍼스는 결국 현대건설에 고개를 숙였다.

어깨 부상으로 자비치와 작별하며 외국인 선수 없이 치른 지난 두 경기에서 팀내 가장 많은 득점을 책임졌던 박정아는 공격 득점 9점(공격 성공률 23.68%)을 올리는 등 제 기량을 펼치지 못했다.

이날 페퍼스는 팀 리시브 효율(33.73%)이 상대에 비해 약 7% 높았고 범실도 낮아 의미있는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양 팀 최다 26득점을 기록한 외국인 선수 모마와 정지훈(18득점), 위파위(11득점), 양호진(10득점) 등 두 자릿수의 득점을 쏘아 올린 공격수들을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지난 1일 GS칼텍스에 세트스코어 1-3으로 무릎 꿇었던 페퍼스는 개막전 첫 승 이후 4연패를 기록하면서 1승 4패(승점 4)로 5위에 자리했다.

페퍼스는 오는 9일 오후 4시 IBK기업은행과 홈구장인 페퍼스타디움에서 1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한편, 모마와 정지훈을 앞세운 현대건설은 이번 경기에서 거둔 승리로 4연승(4승 1패·승점 11)을 기록해 2위에 올랐다. 선두인 흥국생명도 승점 1점 차로 간격을 좁힌 현대건설은 오는 8일 리그 3위를 달리고 있는 정관장을 상대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페퍼스축은행 AI페퍼스가 지난 5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1라운드 경기에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에 세트스코어 1-3으로 패했다. 이예림이 서브를 넣고 있다. <KOVO 제공>

5년 만에 풀코스 부활...순천남승룡마라톤대회 개최

9일 팔마종합운동장

전국 마라토너들이 늦가을 정취를 느끼며 순천 시내를 가로지르는 '제24회 순천남승룡마라톤대회'가 펼쳐진다.

올해로 24회를 맞은 남승룡마라톤대회는 1936년 제11회 베를린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순천 출신 마라토너 남승룡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매년 치러지고 있다.

오는 9일 팔마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풀코스(42.195km)·하프코스(21.0975km)·10km·5km 코스에 역대 최다 참가자인 8500여 명이 지원해 그 열기가 뜨겁다.

이는 지난 2023년 대회보다 3400여명 늘어난 수치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추가된 풀코스 종목과 전국적인 달리기 열풍에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참가자들은 8시 집결해 오전 9시 풀코스 출발을 시작으로 10분 간격으로 하프코스, 10km, 5km 레이스에 나서게 된다.

이번 대회 풀코스는 팔마종합경기장→효사랑요양병원→교량교→순천만습지→순천정미소(인월



지난 2023년 대회 참가자들이 출발 신호에 맞춰 힘차게 달리고 있다. <순천시체육회 제공>

동)→별량 화포항(반환) 코스로 진행된다.

대회가 진행되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마라톤 코스 주요 도로에서 교통이 통제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6일 순천 남파랑길 61코스에서는

순천만 습지를 끼고 달리는 '느려도 괜찮아!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남해안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자는 취지의 이 대회는 우승자를 따로 선정하지 않고 완주자 모두에게 기념 메달을 선사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무릎부상’ 안세영, 일본 마스터스 불참



19일 중국 마스터스 참가 예정

‘셔틀콕의 여왕’ 안세영(삼성생명·사진)이 무릎·발목 등 부상 여파로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불참한다.

대한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6일 “안세영 선수의 소속팀을 통해 공문, 진단서를 제출해 국제대회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세영 측은 공문에서 밝힌 사유는 부상이다. 안세영은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오른쪽 무릎 부상을 당했고, 2024 파리 올림픽 사전캠프에서 발목 힌줄을 다쳤다.

별다른 이상증세 없이 올림픽을 완주,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목에 건 안세영은 부상을 이유로 8월 국제대회를 모두 쉬었다.

지난달 덴마크 오픈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 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덴마크오픈에 출전, 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나선 안세영은 제105회 전국체전에서도 삼성생명의 단체전

우승에 기여했다. 부상 부위를 관리해야 하는 안세영은 오는 12일부터 일본 구마모토에서 열리는 일본 마스터스에 나서지 않는다.

대신 19일부터 예정된 중국 마스터스만 소화하기로 결정한 걸로 알려졌다.

안세영은 25일 충남 보령에서 진행되는 국가대표 강화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올림픽 금메달 획득 직후 부상 관리, 훈련 방식 등에 대해 협회와 대표팀을 직격하면서 김학균 감독 등 코치진과 관계가 불편해져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감독과 안세영은 덴마크오픈 경기 도중 쉬는 시간에 말을 섞지 않는 등 절그러운 듯한 분위기가 중계에 포착됐다.

이와 관련, 김 감독은 덴마크에서 귀국한 후 “아직 다가가고 대화가 필요한 시기”라면서 “조금씩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 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국 중·고등부 검객들 장흥·강진서 실력 겨룬다

11일까지 한국중고펜싱연맹 전국대회

전국 중·고등부 검객들이 전남 장흥과 강진에서 갖고 닦은 실력을 겨룬다.

‘제21회 한국중고펜싱연맹 전국 남녀 종별 펜싱 선수권대회’가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펼쳐

진다.

대한펜싱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중고펜싱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중·고등부 남녀 펜싱 선수 3000여 명이 참여하며 올해 강진군과 장흥군이 공동으로 협력해 유치에 성공했다.

대회 경기 장소는 종목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사

브르는 강진제1실내체육관, 플러레는 강진제2실내체육관에서 열리며, 에페는 장흥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7일부터 9일까지는 개인전이, 10일과 11일에는 단체전이 진행된다.

/김진기 기자 jinggi@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4-11-02(토) ~ 2024-11-30(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1.15(금) 오후 7시 기획공연
 <청년국악 힐링 콘서트>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조조선섬유조형회 특별전
 : 엮고 물들여 쌓은 아름다움으로 위로하다
 일시 : 2024-11-1(금) ~ 2024-12-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